

고창 청보리밭축제 개막

내달 8일까지 학원관광농장 일대에서 펼쳐져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로 꼽히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로 13회 짝을 맞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한국인의 본향 고창, 초록물결 청보리밭'이라는 주제로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대에 펼쳐진 30여만 평의 드넓은 보리밭에서 내달 8일까지 펼쳐진다.

16일 학원농장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의장 유성엽 국회의원, 군의원 이호근·장평식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과 관광객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두드림'의 난타공연과 고창 농악보존회의 농악공연, 신나는데

술버스 공연 등이 흥을 돋웠다.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연인 가족과 함께 초록물결의 보리밭을 거닐어보고 보리개떡과 보리강정, 보리파티 불기와 같은 다양한 토속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상설·전시 행사, 연계·부대행사, 공연·문화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올해는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해 전통농경유물 전시하고 농경생활을 시연하여 관광객들에게 전통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도 마련했다. 아울러 고창관광사전 전시를 통해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의 아름다운 곳곳을 선보이며 다양

한 볼거리도 알차게 준비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포토존과 방문객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며지는 청보리방송곡, 구전설화를 스토리텔링한 노גע비이아기길'과 영화드라마길도 마련돼 참여와 체험의 기회를 넓혔다. 박우정 군수는 "경관농업 대표 축제인 청보리밭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행사를 알차게 마련해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며 "올 때마다 즐겁고 또 찾아오고 싶은 축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므로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최고의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덕치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성료

임연택 씨 효열장·윤영숙 씨 봉사장 수상

"제6회 덕치면민의 날 행사가 15일 덕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초청인사,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덕치면 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한 임연택씨가 효열장을 수상하였고,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희생과 봉사활동을 펼쳐 온 윤영숙씨가 봉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개회식 이후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놀이 등 다채로운 민속경기와 풍물공연, 난타공연, 노래자랑 등 공연이 이어져 주민들의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임실경찰서 기타동 아리 해피비버스의 공연도 더해져 다양한 볼거리로 면민들의 큰 박수를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거리 화단에 튜립 식재

고창군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화단 곳곳에 튜립 9천 5만본을 식재했다. 고창C 진입로와 아산~선운산 간 중앙분리대, 고창읍 우체국 앞 화단 등 거리에 활짝 핀 튜립은 '제1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싱그러움과 봄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년생인 튜립은 앞으로 매년 봄철이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 내 발길 닿는 곳마다 청정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출범 1주년 맞아

균형발전 위해 모든 노력 함께한다

전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4월 17일 구성된 지 1주년을 맞이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4월 17일 동부권 6개 시·군, 남원시(시장 이환주), 진안군(군수 이환로), 무주군(군수 황정수), 장수군(군수 최홍득), 임실군(군수 심민),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동부권의 상생발전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전북도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 부단체장 회의, 정기총회 등 수차례의 회의 과정을 거쳤으며, 전라북도 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분야 확대, 동부권 대비비 조급 상향지원 등 단계적으로 나후된 동부권 지원책과 중장기적으로 동부권 개발을 통한 전북도를 견인할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전북도에서도 국책발굴 포럼에 동부권 분과를 신설·운영하고, 제2차 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등 동부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2016년 국가예산확보 과정에

서 지역권 산림차유원 조성(진안),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임(남원),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무주), 한국형유용군주 산업화기반구축(순창) 등 동부권 사업이 대거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후된 전라북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 발굴·SOC 기반 구축 등은 절실히 필요하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대형 국책사업 발굴 등 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1일에는 동부권 6개 시·군 시장, 군수, 의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과 의회가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협의회에서는 순창군 메르스 발병지역을 방문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하는 등 동부권 지역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하였고, 주민 불편사항인 화장장 이용요금 감면방안 마련, 순창 세종사무소 공동활용 등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내적으로도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회장은 "전북도 발전을 견인하고 동부권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부권 6개 시·군이 힘을

합쳐 행정적, 정치적 노력을 더해 성장·발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상순창공장, 양지천 정화활동

대상주식회사 순창공장은 지난 14일 순창읍내 양지천 1.3km 구간에 대해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50여명의 대상주식회사 순창공장 직원들이 참여해 참변에 버려진 폐비닐과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행사는 순창군과 대상주식회사 순창공장 간 체결한 행복복지 협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다. 대상주식회사 순창공장은 이후에도 매월 1회 이상 양지천 쓰레기 수거와 꽃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군이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이 되도록 매월 정기적인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주식회사 순창공장은 순창군의 특산물인 고추장과 된장, 초고추장, 쌀장, 간장 등 장류 제품의 생산 판매로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량 기업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순창군,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체험

금과 태이친환경 영농조합, 10개 초등학교에 학교 논 설치

순창군이 서울지역 8개 학교 등 총 10개 학교에 학교 논을 설치해 도시 학생들이 순창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도시 10개 초등학교와 금과 태이친환경 영농조합이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인 다음 주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한 10개 초등학교

교에 고무화분과 옥상텃밭, 유휴 부지를 이용해 학교 논을 조성하게 된다. 조성된 논에는 농민들이 방문해 모내기 등을 체험할 수 있게 지도한다. 벼 생육도 관리하고 가을에는 벼 베기 등을 통해 아이들이 친환경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올해 도비를 포함해 4000만원 정도를 투입한다. /순창=구인규 기자



임실군·산림조합·귀농·귀촌인 관촌상월리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임실군과 임실군 산림조합, 귀농·귀촌인들은 지난 14일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산촌생태마을 주민과 함께 산촌 생태마을 가꾸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유관기관 직원,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촌생태마을 휴양관 주변에 철쭉과 꽃다발을 식재하고 마을 주변 나무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등 주변경관 개선작업과 마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마을 정화활동도 함께 펼쳤다.

상월리 산촌생태마을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0억여원을 들여 휴양관, 버섯재배사, 관정, 마을 안길포장 등의 시설을 조성했으며, 포교재배를 통해 연간 3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폐업신고 간소화업종 확대

남원시는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3월 31일자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정부 30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관할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나 시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나 시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았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서는 대상업종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종전 26개 업종에서 49개 세부 업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를 통합하여 민원인이 각각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1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